

시 편

시편은 2천수백년 전부터 하느님 백성의 기도였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느님 백성은 시편으로 기도하였다. 우리는 가톨릭 기도서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직 시편만 있었다. 아침, 저녁 그리고 열심한 사람은 오후 3시 경에도 시편을 바쳤다. 예루살렘에서도, 시골에서도, 유배 간 바빌론 땅에서도 시편으로 기도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사도들도 매일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다락방에서, 박해하는 로마군대를 피해 지하 무덤에서, 그리고 그 후 세계 곳곳의 수도원에서, 성당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시편을 바쳤다.

시편 속에는 창조에서부터 유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요약되어 있고, 그 역사의 각 단락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드렸는지가 내포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하느님께 어떻게 찬미했는지,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외적에 시달릴 때, 전쟁에 지고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유배지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하느님께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다.

또 시편에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시가 있고, 하느님 백성의 비탄과 탄원의 시, 개인적인 비탄과 탄원의 시가 있다. 또 예언적인 훈계의 시편이 있고, 지혜의 시편이 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시편집의 제목은 ‘찬양가들(Tehilim)’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시편 집에 기쁜 환호의 노래만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탄원의 시가 찬양시보다 더 많다. 그래도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 5편은 또 찬양으로 종결짓는다. 150 시편 중 앞부분에서 주로 탄원시가 주류를 이루고 뒤로 갈수록 찬양시의 비중이 커진다. 시편이 기본적으로 찬양이라고 하면서 왜 시편 안에 탄원과 한탄, 비탄의 시가 많이 들어가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시편이 주님께 피신하는 가난한 이들의 기도이기 때문이다.

시편 34편에서도 말하듯이 가난한 이들은 주님께 매달려 그분 안에 몸을 피함으로써 주님의 좋으심을 보고 맛들이지만(34,9), 주님께 ‘피신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삶이 곤경 중에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들의 찬미는 세 청년이 불가마에서 부른 찬미의 노래(다니 3,51-90)와 같은 것이다 .

지극히 평화로워 보이는 시편 23편에서 기도자는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라고 말하지만(1절), 그는 자신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것임을

다른 피조물에게 호소하고 권고하는 내용이지 직접 자신이 하느님께 찬미를 읊는 것은 아니다(예. 150편).

시편이란 우리를 기도의 본 맥으로 안내하는 전주곡이나 마찬가지로이다. 관광버스를 타면 가이드가 그 지방의 역사와 환경, 문화와 풍습을 설명하며 여행객이 경치를 더 깊이 감상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 마치 제주를 찾는 육지 관광객에게 우리가 제주의 돌담, 정랑, 조랑말, 해녀들에 대해 설명하듯.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느님의 계획은 얼마나 오묘한지를 노래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하느님의 섭리와 하느님의 역사를 감상하면서 찬미하고 감사드리도록 도와주는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 수도원에서는 성무일도를 바치면서 세 개의 시편을 노래하는데, 하나의 시편이 끝나면 다음 시편을 노래할 때까지 땅 바닥에 엎드려서 침묵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그것은 시편이 끝나서 쉬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에 오히려 몸과 마음을 집중하여 하느님께 직접 본인이 기도하는 행위이다.

어떤 교부에 의하면 시편 사이의 이 침묵 시간은 ‘영혼과 육신의 전 에너지를 한데 모아 눈물지으며 열정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떨며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다.’

Caesareus :

‘시편을 바치는 것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기도하는 것은 다시 한 번 흙을 퍼서 그 뿌린 씨 위에 덮어주는 것이다.’

이는 시편 낭송 후에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침묵의 기도시간이 꼭 필요함을 가르친다.

시편을 낭송한 다음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 하면 비록 믿음을 갖고 시편을 바친다하여도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시편의 낭송을 끝내면 각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탄원의 기도를 바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의 구절에 우리가 직접 알아듣기 힘든 내용이나 납득이 안가는 너무 과격한 표현이 나온다 해도 상관하지 말고 그 줄거리만 받아들이고 침묵 중에 이를 토대로 나 자신의 기도를 바치면 된다.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미드릴 때(30편, 32편)

죄를 저지르고 용서를 청할 때(51편)

임금의 즉위식, 결혼식 때 하느님의 은혜를 구하는 때(2편, 45편, 20편, 21편) ;

여기서 임금은 그리스도로 대치하여 기도할 수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대한 경고(50편, 53편, 82편)

<시편은 음미하는 기도>

베네딕도 규칙 43,3 : ‘아무 것도 하느님의 일(성무일도)보다 낮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는 수도자가 세상을 떠나면 장례미사 때까지 며칠 동안 두 사람의 동료 수도자가 관 옆에서 교대로 시편을 낭송하는 습관이 있다. 한국 교회의 연도도 이런 교회의 오랜 관행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시편의 구절들은 음미할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온다.

‘하느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겨주소서.’ 이런 표현이 시편 여러 곳에 등장한다 (17,8-9 ; 36,8-9 ; 57,2-4 ; 61,3-5 ; 63,8).

여기서 날개라 함은 계약의 궤를 덮고 있던 두 개의 커다란 케루빔 천사의 날개를 가리킨다(탈출 25,20). 따라서 하느님 날개 아래 머문다는 것은 직접은 예루살렘 성전의 참배를 의미하고, 상징적인 의미로는 하느님의 보호를 받고 하느님 안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얻는다는 뜻이다.

탈출 19,4에서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갈대바다로, 그리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역사를 한 마디로 축소하여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태워 여기 데려왔는데…….’라고 표현된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날개’라는 표현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다.

<시편은 기도를 준비하는 기도다>

시편을 읊는 것 자체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는 아니다. 시편 중에 ‘주님,……구하소서!’하고 기도하는 내용도 있지만, 하느님께 호소하지 않는 시편도 많다. 시편 1편은 하느님께 순종하는 의인과 거역하는 악인의 운명을 서술하고, 하느님께 직접 호소하지는 않는다. 시편 2편도 마찬가지다. 메시아에 대한 하느님의 선언과 선포이며 메시아에 거역하고 저항하는 지상의 왕들에 대한 경고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시편도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인간과

안다(4절). 시편은 모든 것이 채워지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들의 기도가 아니다. 주님 외에 어디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며 구원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기도다.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 시편이 많다. 그러나 승리자이며 정복자인 다윗보다는 사울에 쫓겨 다니거나(13편), 아들 압살롬에게서 달아날 때(3편), 아비멜렉 앞에서 정신이 나간 척하여 떠나갈 때(34편)처럼 고통 받는 의인의 측면이 부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이런 시편에서 다윗은 영광스러운 정복자이기에 앞서 박해받고 고통 받는 기도자로 제시된다.

또 유대교의 전통적인 시편 해석에서는 ‘시편에서 다윗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에게 적용된다.’ 즉,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동일시하는 집단적 해석을 한다. 이 집단적 해석을 통해서 고난의 역사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역경 속에서 하느님을 신뢰했고, 결국은 하느님께 구원되었던 다윗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스스로를 메시아적 백성으로 이해하고 다윗을 모범삼아 그의 시편을 기도했던 것이다.

시편의 기도가 이루어진 시대, 장소, 환경, 내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새로운 하느님 백성인 우리도 이 시편을 활용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집에서 평안할 때나 긴 여행에 나섰을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유혹을 받을 때나, 박해받을 때나, 성공하였을 때나, 어떤 기회에도 시편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 기도를 외칠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한 예로니모 성인(340-420)은 시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분은 팔레스티나에 가서 오래 살면서 성경 연구에 전념했다.

‘그리스도의 마을 베들레헴은 정말로 산골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이다. 그곳에서는 시편을 노래하는 소리 외에는 침묵이 있을 뿐이다. 어디를 가든지, 밭은 때는 사람은 손에 쟁기를 들고 알렐루야를 흥얼거린다. 땀 흘리며 추수하는 사람은 시편을 노래하며 기운을 차리고, 낮으로 포도나무 가지를 치는 농부는 다윗의 시편을 노래한다. 시편은 이 지방의 노래요 애창곡이다.’(PL 22,491)

시편은 모든 기회에, 모든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다.

아침, 저녁 기도용(57편, 4편, 134편)

예루살렘으로 긴 순례의 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하느님의 보호를 청할 때(121편) ; 우리도 긴 여행, 중대한 일을 착수하기에 앞서서 사용할 수 있다.